

AIDS NEWS

클린턴 획기적 에이즈정책 발표 예정 백신개발 차별철폐등 6개목표 설정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6개 정책목표를 설정,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획기적인 에이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美CNN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번에 발표되는 에이즈 대책은 ▲생존 에이즈 환자의 치료약 개발과 추가확산방지를 위한 백신개발, ▲에이즈 확산 감소책과 궁극적인 에이즈 완전 박멸, ▲에이즈 환자에 대한 헬스케어 등 공공 의료혜택 제공 보장, ▲에이즈 관련 차별 철폐, ▲에이즈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과학연구 지원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연합)

휴대용 DNA 검사기 첫선 에이즈 20분내 확인

배터리로 작동되는 사상 최초의 「휴대용 DNA 검사기」가 미국에서 개발돼 불과 수분에서 십여분간의 짧은 시간내에 검사결과를 알게 됨으로써 식품과 물 오염은 물론 유해 신원확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DNA 검사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게 됐다. 휴대용 DNA를 개발한 캘리포니아 소재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연구진은 이 검사기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이 DNA 검사기가 의료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면서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20분 미만에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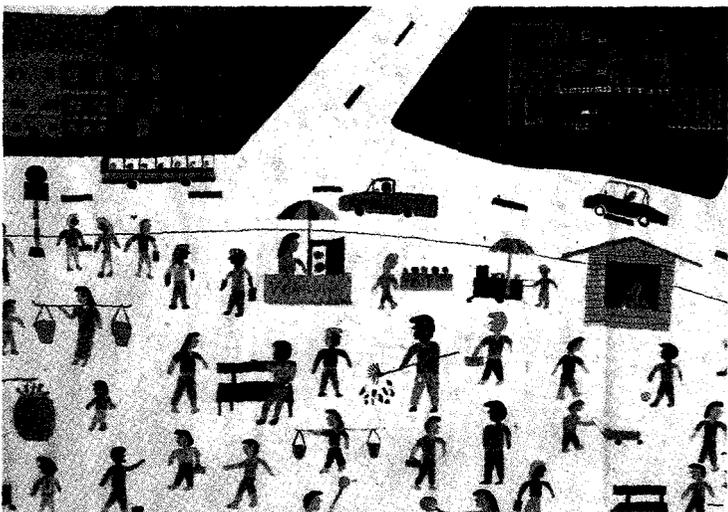
피에서 찾아내는 실험에 이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리버모어(미캘리포니아주)UPI연합)

미 에이즈 백신 개발 활기 최근 HIV발병경로 규명돼 백신개발 박차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 美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생물

에이즈가 번지기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바이러스들처럼 수년안에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

AZT치료 신생아 감염줄인다 후진국 이용엔 너무 비싸



· 태국 어린이의 '에이즈'에 관한 생각을 그린 그림엽서

학교수가 美국립보건원(NIH)의 에이즈 백신개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에이즈백신개발이 활기를 띠게 됐다.

볼티모어교수는 현재로서 백신개발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와 病因에 관한 연구자료가 많아 에이즈백신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에 감염되는 신생아 수가 산모를 임신기간중 에이즈 치료제인 AZT로 치료할 경우 4분의 1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美연방 보건관리국이 밝혔다.

관리들은 그러나 AZT가 후진국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에틀렌타주 질병통제·예방센터

AIDS NEWS

(CDC)는 92년부터 95년 사이 분만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신생아수가 연간 9백 5명에서 6백63명으로 27%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전체로는 지난 88년에서 93년 사이 연간 7천명의 신생아가 산모로부터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애틀랜타 UPI=聯合)

정액서 에이즈바이러스 제거 신생아 안전 출산에 희망

일본 의사들은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를 정액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HIV에 감염된 남성과 그들의 상대자가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희망을 주게 됐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에이즈협회 회의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보균자의 정액 1ml에 있는 HIV의 수를 약 3만개에서 25개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인공수정을 응용하는 경우 상대방에 HIV를 전염시킬 위험은 1만 명에 한명꼴이라고 말하고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들은 원심분리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경 AFP=聯合)

10년내 에이즈 발병지연 백신개발 노벨상수상 칭커나겔 박사 "근절은 어려워"

지나해 신체면역체계 연구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볼프 칭커나겔 박사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발병을 지연시키는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이 백신이 HIV의 감염을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사람들의 경우 HIV에 감염된 후 에이즈가 발병하는데는 20~40년이 걸리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데는 10년 가량이 걸린다. (스톡홀름 AP=聯合)

에이즈바이러스 새 감염경로 발견 독성 적은 치료제 개발가능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어떻게 정상세포에 침투하는지를 알려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독성이 보다 적은 에이즈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美國 과학자들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대학의 과학자들은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HIV가 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도킹' 장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또 CCR5라고 불리는 한 수용체에 다수의 도킹 장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聯合)

에이즈치료효과 한방치료제 발견 증상완화 기능회복현상 관찰

에이즈에 대해 부분적으로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초를 이용한 한방치료제가 발견됐다고 상해

시립 에이즈검사소가 밝혔다.

이 검사소의 강 라이너 소장은 수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복용시킨 결과 에이즈 증상 완화와 함께 면역체계가 다시 기능을 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면 환자들의 혈액에서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T24 항원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에이즈 환자에 앞서 실시한 동물실험에서도 이 한방 치료제가 면역체계를 대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단기적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경 로이터=聯合)

에이즈 방지위해 여성용 콘돔보급 유엔에이즈...80개국 7백만개수입

유엔은 계속 확산 추세에 있는 에이즈에 대처하기 위해 피임약 제조회사와 손을 잡고 여성용 콘돔을 보급키로 했다.

UNAIDS 프로그램의 피터 피오프 사무국장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이 성생활에서 제한된 결정권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다양한 에이즈 방지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성용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UNAIDS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의 1백93개 국가는 이 콘돔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나 가격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이 콘돔의 명칭도 달라 미국에서는 리얼리티, 스웨덴에선 페미, 11국의 국가에서는 페미돔으로 불린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런던

AIDS NEWS

로이터=聯合)

에이즈발견자 갈로박사 새연구소 열어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자 중의 한 사람인 로버트 갈로 박사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인간 바이러스학 연구소'를 열었다고 미국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의료생물공학센터의 에드문드 트라몽 국장은 워싱턴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소의 실험실과 역학, 임상조사 기능을 모두 통합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생물공학센터에 속할 갈로 박사의 새로운 연구소는 메릴랜드주로부터 1천2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설립된 것이다.

갈로 박사는 지난 30년간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재직해 왔다. (워싱턴

AFP=聯合)

日대학병원 수술환자 HIV 정기검사

일본 대학병원 가운데 3분의 2가 의사들을 HIV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술을 받게 될 환자들에게 대해 정기적으로 HIV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HIV 양성 반응 환자들을 치료하는 50개 대학병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39개 병원 가운데 3분의 2가 수술받을 환자나 출산할 환자에 대해 HIV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과 유럽의 외과의들이 HIV 감염 환자들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HIV에 감염됐다고 알려진데 영향을 받아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정기적으로 HIV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일본에서는 외과의가 수술 중 HIV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동경 UPI=聯合)

역사상 처음 에이즈백신 임상실험 쿠바서 건강인 24명 지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상최초의 에이즈 백신 임상실험이 쿠바에서 시작됐다고 쿠바관영통신 프렌사 라티나가 보도했다.

쿠바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개발된 실험용 에이즈백신이 24명의 자원자들에게 투여됐다고 밝히고 실험대상이 되기를 자청한 이들의 "소리없는 영웅적 행동"을 치하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카스트로는 이번 에이즈백신의 임상실험은 에이즈연구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백신은 아직 개발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쿠바유전-생물공학연구소의 마누엘 리몬타 박사는 2년전 에이즈백신이 2000년쯤 쿠바연구팀에 의해 개발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아바나 멕시코시티 AFP.UPI=聯合)

장기체류 외국인 에이즈검사 의무화 해외서 3개월이상 내국인도

이란은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이란 도착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주간 카이한 하바이니지가 보도했다.

모하메드 이스마일 아크바리 보건부차관은 "이란에 3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과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는 내국인은 이란 도착시 에이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은 에이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란 보건부는 이란내 4백여명의 에이즈환자중 1백23명이 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집계했다. (테헤란 DPA=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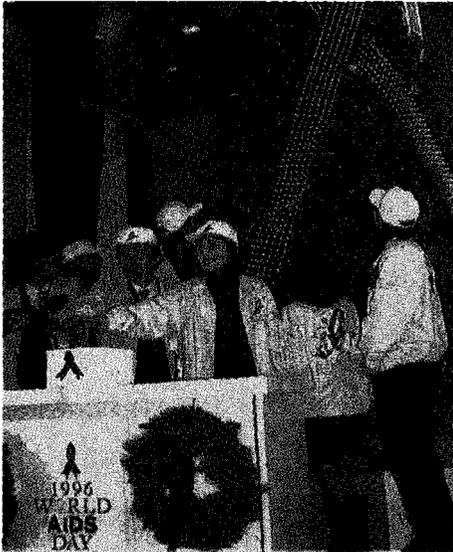


うつらないように、うつさないように。Safer Sex

• 일본의 에이즈예방포스터

AIDS NEWS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 세계 곳곳에서 열려
수백만명 붉은리본달아 위험성경고
관심제고 퇴치기금확대추구 행사벌어**



• 일본의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중에서도 붉은리본이 걸린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하는 모습.

12월1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수백만명이 전세계 곳곳에서 기념식을 갖고 '20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에이즈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국가와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오늘날 2천2백여만명이 에이즈환자거나 HIV 감염자로 에이즈관련 사망자는 6백여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에이즈퇴치를 위해 특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과학자들은 필수적으로 에이즈 치료법을 연구해왔으나 아직 이렇다할 치료법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나온 많은 메시지들은 예방이 최선의 길임을 다시한번 일깨워주었다.

유럽 에이즈퇴치운동가 등 수백명이 파리중심가 동지에서 '에이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이즈생존자는 한명도 없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가두행진은 런던, 아테네, 빈 등 곳곳에서 열렸으며 독일의 주요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콘돔을 나눠주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예술가들이 하루 수익금을 에이즈연구소에 기부했으며 스웨덴의 한 기념식에서는 에이즈환자만자수만큼 촛불 1천4백45개를 밝혔다.

아시아 80만명의 HIV 감염자와 함께 8만여명의 에이즈사망자를 기록한 태국에서는 4백20개 주유소가 고객들에게 3백만개 콘돔을 무료로 선사했다. 일본 도쿄(東京)에서는 4백여명이 모여 1만2천여개의 빨간 리본을 단 6m 높이의 나무에 등을 밝혔다. 배경에서는 비참한 모습의 에이즈희생자 사진이 전시됐는데 중국의 경우 오는 2000년까지 현재보다 열배나 많은 1백만 이상이 HIV에 감염될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념식이 예정돼 있으며 뉴욕에서는 에이즈환자 치료를 꺼리는 병원들의 열리성에 합의하기 위한 24시간 경제조가 전개돼 있다.

러시아 의학아카데미는 HIV감염자가 지난 10년간 2천1백5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시민들에게 에이즈확산을 경고했으며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행사참석자들이 가두행진을 하면서 콘돔을 배포했다.

아프리카 내전 등으로 인해 대부분 세계에이즈의 날에 무관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짐바브웨에서는 소규모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8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공의 테스몬드 투투주교는 TV를 보물에 출연, 에이즈확산경고와 함께 콘돔 사용을 당부했다.